

사회적 트라우마의 개성화와 치유를 위한 미디어 테라피 가능성 연구

융(Jung)의 집단 무의식과 개성화 사유를 중심으로*

유숙 중앙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강진숙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적 트라우마 현상을 분석하고, 미디어를 통한 트라우마 테라피의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융의 집단 무의식과 원형, 개성화의 개념을 적용했고,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 심리상담 전문가, 일반인 자원봉사자와 일대일 심층인터뷰 및 초점 집단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일차적/이차적 피해 경험에 따라 고립감, 불안 등 각기 다른 형태의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나, 공동체로서 사회적 트라우마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죽음과 삶, 애도와 기억 등의 원형이 표출되고 있었다는 점, 또한 테라피 활동을 통해 다양한 원형들의 상징이 포착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테라피 프로그램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공예 활동의 테라피 효과가 높다는 점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트라우마 테라피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트라우마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성화를 통한 치유와 미디어 테라피의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KEYWORDS 사회적 트라우마, 세월호, 개성화, 집단 무의식, 미디어 테라피

* 이 내용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reginann@naver.com, 주저자

*** jskang1@cau.ac.kr, 교신저자

1. 서론

“무의식의 모든 것이 외부로 나타나 사건이 되고, 인격 역시 무의식의 조건에 따라 발달하며 스스로를 전체로서 체험하고자 한다.”(Jung, 1962/2007, 11쪽)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구스타브 융(C. G. Jung)은 자신의 생애를 무의식이 자신을 실현한 역사라 평가할 정도로 무의식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융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길잡이가 됐다. 인간은 한 평생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며,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트라우마(Trauma)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안긴다.

최근까지도 한국인들은 역사적·사회적으로 수많은 트라우마를 겪어왔고, 융의 표현대로 이는 집단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다. 2014년 봄, 검푸른 수면 위로 불쑥 솟아오른 선체가 서서히 잠겨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목도하던 국민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세월호는 그렇게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세월호 참사는 특히 어린 학생들이 한꺼번에 희생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의식의 부재와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충격과 성찰의 계기를 가져왔고, 국가 안전망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버린 끔찍한 사건이다. 2015년 초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는 광복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한국전쟁에 이어 세월호 참사가 2위에 올랐을 정도로 전 국민에게 큰 트라우마가 됐다(이정애, 2015, 1, 1).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진상 규명이 진정한 심리 치유라고 말하는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유가족이 아닌 ‘투사가 되어 가장 앞에 서서 싸워왔기 때문에 슬픔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었다. 이처럼 애도와 아픔을 치유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제대로 된 트라우마 치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피해자들이 계속 앞장서야 하는 현실은 이들에게 더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투사가 된 피해자들이 진상 규명 후 일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심리상담을 받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치유 방법이 필요한가?

융은 집단 무의식의 발견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꿈을 관찰하면서 융이 발견한 것은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화적 요소였다. 융은 이것을 인간이 누구나 경험하지 않고도 본래 가지고 있는 무의식, 즉 집단 무의식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 트라우마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행된 개성화와 치유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미디어에

라피의 가능성들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융의 분석심리학 가운데 집단 무의식과 원형, 개성화의 개념을 적용하여 세월호 참사의 일차적·이차적 피해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개개인이 경험한 사회적 트라우마와 미디어를 통한 치유 경험을 분석한다. 또한 기존의 정형화된 미디어 테라피 외에 대안적인 치유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이를 위해 전문적인 미디어 테라피 방법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등이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개성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 가능성과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집단 무의식과 원형의 심상화

무의식 연구의 선구자 프로이트(S. Freud)는 무의식을 의식 속에 잠재된 잠재의식이 아닌, 의식과는 구별되지만 같은 종류로 생각했다(배우순, 2008). 1915년 저작 〈무의식에 관하여〉에서는 “억압을 통해 어떤 표상이 의식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표상이 무의식의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Freud, 1915/2003, 160쪽)라고 표현하며 무의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억압을 제시하였다. 프로이트가 억압을 중요하게 생각한 까닭은 무의식의 세계가 억압된 표상들이 모인 곳이며, 무의식은 의식이 억누르고 있는 욕망 덩어리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욕망, 즉 리비도(Libido)를 충족하려 하면 의식이 제동을 걸어 리비도를 무의식에 억압한다(정인석, 2008).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억압된 욕망이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꿈이다.

융은 개인의 무의식이 존재하며 인간 행동이 그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프로이트의 의견에는 동의했으나,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억눌린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인식에 반발하는 ‘악역’이라고 여긴 것과 달리 융은 자기 이해를 위한 단서로 여겼다. 마음이 비틀어질 때 무의식이 경고를 해준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협력하여야만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정현, 2008; 정인석, 2008). 무의식에는 창조의 힘이 있고 이를 통해 정신적인 갈등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융에 따르면 전체로서의 인격인 ‘정신’은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된다(Hall & Nordby, 1973/2009). 의식은 정신에서 개인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며 우리가 일상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자각하는 상태다(박성일, 1996). 개인의 의식이 타인과 구분되는 의식의 개성화 과정을 통해 ‘자아(ego)’가 형성되는

데, 자아는 융이 정신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 의식의 입구를 지키며 개인의 경험을 의식화하는 허용 범위를 정한다. 여기서 자아에 의해 인식되지 못한 경험들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무의식으로 저장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쉽게 의식화될 수 있다(Hall & Nordby, 1973/2009). 집단 무의식은 정신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집단 무의식의 개념은 심리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발견으로 여겨진다. 융은 환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무의식적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것이 창조적 환상활동의 조절자이자 자극자로서 의식 자료를 목적에 맞게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따라서 이러한 무의식적 조절자 역할을 비개인적인, 집단 무의식 가설의 근거로 내세웠다(Jung, 1984a/2002). 융보다 앞서 철학자 니체(F. W. Nietzsche) 역시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인지하고 무의식이 태고 시대를 다시 체험하는 계통발생적 과정을 반복하면서 동시에 예술적인 창조 작업과 같은 생산적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다(김정현, 2008). 융은 이에 대한 사유를 보다 심화했고 집단 무의식이 초개인적인 성질이 있는 보편적 정신의 토대로 원형과 관련 있으며, 개개인이 전체 인류와 역사를 대변한다고 봤다. 인간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계통발생적인 발전의 흔적을 남겨왔다는 것이다(Jung, 2001: 김정현, 2008 재인용). 예컨대, 뱀이나 어둠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공포심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강화되기도 하지만 이보다 앞서 무수한 세대에 걸쳐서 인류가 집단적으로 경험해온 공포가 대대로 뇌리에 새겨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집단 무의식 내에는 인류가 경험한 모든 기억의 총합인 원형이 자리하고 있다(김서영, 2007). 융은 원형을 “정신 속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있고 널리 퍼져 있는, 어떤 일정한 형식들”(Jung, 1984a/2002, 156쪽)이자 “집단 무의식의 내용에서 고대의, 혹은 원초적 유형, 즉 고대로부터 존재해온 보편적 상”(Jung, 1984a/2002, 107쪽)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원형은 나타나는 시점에 개인의 의식에 맞추어 의식화되고 지각됨으로써 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평소에는 인식할 수 없었던 잠재적 원형이 현실화되고,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와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원형의 재현이다.

원형은 이미지로 표출돼 원형적 심상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오랜 역사를 거쳐 온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의해 표출되는 이미지의 실체이다(박성일, 1996). 따라서 이미지로 표현된 원형적 심상은 신화나 꿈 등이 상징적으로 형상화돼 나타난 것이며, 집단 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인간의 잠재의식과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경험들을 통해 유전되고 신화, 종교, 꿈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형적 심상을 형상화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나 민담에서 인간의 심혼 속에 사는 신이나 영웅의 숙명을 묘사하고, 계절과 달의 변화 등 자연의 과정을 신화화 하는 것은 내면적이고 무의식적인 상징의 표현인 것이

다(Jung, 1984b/2002). 여기서 상징은 어떠한 용어나 이름, 그림 등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 외에 특정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내포된 의미를 뜻한다.

원형 자체가 원형적 이미지나 상징, 콤플렉스 등으로 드러날 때에만 우리는 원형을 대면할 수 있는데 그 관념은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때로는 인간이나 동식물로, 때로는 도형이나 이미지로 시각화될 수는 있다. 상징은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인식 너머의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고, 정의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을 표상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특히 종교에서 상징적 언어와 이미지를 자주 사용한다. 꿈은 원형의 주된 원천이며 원형의 상징이 꿈을 통해 무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지만(김서영, 2007) 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상징을 만들어내려는 경향이 있고, 무엇이든 상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을 통해 개성화가 일어난다.

2) 간접 외상과 사회적 트라우마

트라우마는 충격적인 사건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나타나는 정신적·신체적 증상을 일컫는다. 어원은 그리스어 'traumat'로 몸에 가해진 상처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정신에 가해진 상처라는 뜻으로 바뀐 것은 프로이트부터다. 프로이트는 보호 방패를 뚫을 만큼 강력한 외부 자극을 '외상적'이라고 정의했고, 트라우마는 보호 방패로서의 재현 체계가 밀려져 가라앉은 상태라고 설명했다(박찬부, 2010). 융은 트라우마와 유사한 맥락에서 감정적 충격으로 심리적 이상이 생기는 것을 '콤플렉스'의 작용으로 봤고, '감정적으로 강조된 심리적 내용'이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심정 요소의 일정한 군집'이라고 정의했다. 즉, 통합된 의식의 질서와 사고의 흐름에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으로 교란을 일으켜 화를 내게 하거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이부영, 1998).

초기 연구에서 융은 "(콤플렉스의) 기원은 흔히 소위 정신적 상처(trauma), 어떤 감정적 충격 같은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의식으로부터 정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Jung, 1934: 이부영, 1998 재인용)이라고 생각했다. 융은 모든 콤플렉스가 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으며, 유년기의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해 형성되는 개인적 특성의 콤플렉스와 달리 집단 무의식에 속하는 콤플렉스는 문제를 일으키기보다 사람들이 주어질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봤다. 인류가 경험해온 것들과 그 관념들을 통해 콤플렉스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콤플렉스는 바로 원형이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삶에 위기가 닥치거나 심리적 이상이 생길 경우, 그 사건이 집단 무의식 내의 콤플렉스를 자극해 부정적 요소를 이끌어내고 이것이 부정적 콤플렉스로 귀결된다(김성민, 2012). 또한 집단 무의식의 '타고난' 콤플렉스는 각자의 경험과 결합해 개인적 콤플렉스가 형성될 때 영향을 주므로 개

개인에게서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다.

특정한 계기로 많은 이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겪게 되는 것을 ‘사회적 트라우마’ 또는 ‘집단 트라우마’라 한다. 기존 자아심리학에서는 PTSD에 대해 주로 개인 차원에서 논했지만, 최근에는 트라우마를 사회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살펴본 연구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트라우마의 사회적·역사적 배경과 개인의 경험을 연결시켜 거시적인 차원에서 치유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건사와 일상사, 개인사와 사회사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김동춘·김명희·강은숙·최현정·이재승, 2014). 트라우마의 직접적 피해자들은 일부지만, 원인은 사회구조적 환경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트라우마는 일반 트라우마와 구분해 역사나 사회 구조적인 조건들까지 두루 고려돼야 한다.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사회적 전승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과 심리가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고 확산되기 때문이다(최윤경, 2014). 이는 직접 외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어떠한 집단 안에는 그 집단의 특정한 역사적·사회적 조건 하에서 형성되어 있는 집단적 리비도¹⁾가 있고, 사회 심리적 차원에서 트라우마를 지속시키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이다(김종곤, 2013). 이처럼 개인의 욕망이 억압되면서 형성된 게 아니라 집단적 인 삶의 역사적·사회적 성격에 따라 형성돼 있던 집단 리비도가 좌절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회적 트라우마라면 집단 리비도가 억압되는 심층의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며(김종곤, 2013), 융이 발견한 집단 무의식 개념을 전제로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해 논 의해볼 수 있다.

사회학자 알렉산더(J. Alexander)는 〈사회적 삶의 의미〉(2003/2007)에서 ‘문화적 트라우마(cultural trauma)’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집단 의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서 그들의 기억에 영원히 자국을 남기고, 돌이킬 수 없는 근본적인 방식으로 자신들 미래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끔찍한 사건을 당했다고 여겨질 때”(197쪽) 발생한다. 이와 함께 알렉산더는 문화적 트라우마 혹은 외상을 통해 사회 집단, 민족, 전체 문명까지도 인간 고통의 존재와 근원을 인식하고, 고통에 대한 책임감을

1) 여기서 리비도는 ‘생명력’ 또는 ‘정신 에너지’로 보아야 마땅하다. 융은 리비도를 성욕으로만 해석하는 프로이트의 이론에 반대하면서, 리비도에 대해 “어떠한 도덕적 심급, 혹은 그 밖의 심급에 의해 저지를 받지 않는 일종의 욕구 또는 충동 ... 자연적 상태에 있는 일종의 욕구(Jung, 1985/2005, 203~204쪽)”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에너지, 즉 리비도가 상징을 통해 문학과 회화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예술의 원동력이 된다는 주장을 밝히기도 했다(Jung, 1985/2005).

수용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철(2010)은 알렉산더의 문화적 외상을 응용해 '사회적 외상' 개념을 소개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이 외상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에게도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디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목격한 이들이 외상 사건 이후 후유증처럼 '살아남음'으로 인해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김명희, 2015).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세월호 사건의 생존자나 유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또는 사회적 트라우마의 치유에 대한 연구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 중 박정아(2015)의 연구는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트라우마에 한국인들의 원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치료적 신화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부분과 맥락이 이어진다. 세월호 참사는 과거의 재난들과 달리 2년 넘게 논쟁이 이어져오면서 한국인의 내면에 원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콤플렉스이자 트라우마가 집약된 사건이기도 하다. 무능한 정치권력과 리더십 부재에 대한 트라우마, 국가에 의한 보호가 아닌 국가 폭력에 희생되는 피해자의 트라우마,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의 트라우마 등 한국사회가 대를 이어 경험해 온 트라우마들이 세월호라는 한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박정아, 2015). 따라서 세월호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들이 이러한 개성화 과정을 통해 트라우마가 치유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생각해볼 수 있다.

3) 개성화를 통한 미디어 테라피

트라우마는 심리상담, 약물치료 등의 치료가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극도로 자기 비판적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기 쉬워 자기 자신과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자기 치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Allen, 2005/2010). 여기서 '자기'라는 용어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치유의 과정에서 자기 가치감을 되찾아주는 나 자신, 즉 자기에 대한 이해는 '온전한 나 자신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용의 개성화 과정과도 결을 같이한다.

니체는 꿈을 해석하는 작업이 자신을 아는 것, 즉 '자기화(Selbstwerdung)'라고 생각했고, 용은 이러한 니체의 견해를 분석심리학으로 끌어와 '개성화(Individuation)', '자기실현(Selbstverwirklichung)'이라고 명명했다. 용은 자기 찾기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상징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무의식의 과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칭했다(김정현, 2008). 이처럼 용의 분석심리학에서는 개성화 또는 자기실현을 강조한다. 분석대상 역시 병이나 환자가 아닌 '한 사람'이라는 존재이며, 개성화란 '그 사람 자신' 또는 '그 사람의 전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인간이 온전히 전체로 살게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모든 가능성을 다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창조적 원동력은 자기원형이며, 이러한 자기원형이 전체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개성화 또는 자기실현인 것이다(이부영, 2014). 이러한 개성화의 과정은 여러 상징을 해석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부분을 의식화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융은 예술이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상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예술에 담겨 있는 무의식의 상징들을 이해하거나 원형적 심상을 예술로 표현하는 상징화 과정이 자신을 자각하게 해 통합적 자아를 형성하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오승진, 2015). 이 때문에 환자들에게 꿈의 상이나 착상을 자유로운 상상 속에서 확장하거나 개발하도록 했고, 개인의 소질이나 재능에 따라 극이나 토론,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으로, 춤이나 그림으로, 소묘 혹은 조각의 형태로 표현하게 했고, “(이 기법의 결과로) 무수하게 복잡한 형상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내가 후에 개성화라고 부른 무의식 과정의 자연 발생적인, 환자의 기법상의 능력에 의해 표현된 것”(Jung, 1984/2002a, 65쪽)이라고 평가했다.

개성화를 통한 심리 치료 연구는 주로 모래놀이 치료, 독서 치료, 미술 치료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 트라우마와 개성화 과정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나, 눈에 띄는 연구 중 하나는 북한 이탈주민의 시(詩)에 나타난 그림자 원형의 형상화와 개성화 과정을 분석한 연구이다(김지훈, 2015). 이 연구에서 분석한 북한 이탈주민의 시는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역사 및 사회적 현실과 북한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생존과 인권의 문제, 슬픔과 분노, 공포와 불안 등 개인적이면서 집단적인 무의식의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요소들이 자기성찰로서 그림자를 형상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트라우마 테라피 영역에서는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영화 등 다양한 예술 활동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예술을 매개로 한 치유는 예술 작품에 창작자의 무의식이 실현돼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특히 최근 디지털 미디어와 기기의 대중적인 확산으로 과거와는 달리 사진이나 영화 등을 누구나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술 치료에서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도와 치료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송낙원, 2013). 1990년대부터 시작된 영화치료의 경우 영화가 다양한 인간의 삶을 다룬다는 점과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자 그 과정에서 감정의 정화와 심리적 고양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 매체로 더욱 각광 받고 있다(정덕자, 2013). 이강화(2007)는 영화의 내러티브 구조 등 예술 매체가 내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무의식적 방식으로 표현되며, 여기에 주목하고 분석하는 것이 영화를 통해 심리 치료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디지털 미디어의 상호작용성은 단순히 의견과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예

술의 유희성과 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소통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미디어를 통해 자아 정체성을 고찰하고 자아커뮤니케이션 과정 활성화를 유도하기도 한다(이지양, 2013; 한주연, 2015). 이는 예술의 창조적 활동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으로부터 치료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만족감은 표현 욕구 분출을 통한 자각에서 오기 때문이다(한주연, 2015). 이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는 기존의 트라우마 치료를 벗어난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안산온마음센터(2016)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테라피 프로그램 중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요가 등 신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며,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은 주로 희생자의 형제, 자매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경우 내면의 아픔을 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사진 촬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안산온마음센터, 2016).

위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일상에서 가깝게 접하는 주변의 미디어들을 통해서 외상자들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 및 피해자, 심리상담 전문가, 일반인 자원봉사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해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트라우마의 치유 경험을 연구하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연구참여자들이 어떠한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어떠한 상징들과 활동을 통해 개성화와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디어 테라피 활동에는 어떠한 한계점이 있으며, 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연구참여자들이 일차적 또는 이차적으로 경험한 사회적 트라우마에는 집단 무의식과 원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연구참여자들은 테라피 활동을 통해 어떠한 상징을 표현하며 개성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연구참여자들의 미디어 테라피 활동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은 외상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사회구조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했다. 자료는 사회적 트라우마의 특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거나 이와 관련한 전문가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을 의도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Intentional sampling) 방법으로 1차 수집을 하고, 접근이 쉽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상 연구참여자가 연쇄적으로 소개해주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으로 2차 수집을 실행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직접적인 피해자를 A그룹, 피해자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심리 변화를 전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심리상담 전문가를 B그룹, 자원봉사자를 C그룹으로 나누어 선정했다. A그룹의 경우 테라피 활동 경험을 기준으로 다시 나뉘 차이를 보고자 했고, C그룹은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간접적인 트라우마로 꾸준히 봉사에 참여하고 있어 사회적 트라우마에 있어 A그룹과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문항을 토대로 일대일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와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병행하였다. 그 이유는 질적 연구방법의 일환인 심층인터뷰 방법이 연구참여자 개인의 심층적 인식을 자료 수집하는 데에 적합하다면, FGI는 집단의 공통된 인식과 이견들을 수렴하는 데에 타당한 방법이기 때문이다(강진숙, 2016). 이 과정에서 1년여 전부터 우선 유가족들이 주로 모여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 안산 화랑유원지 내 유가족 대기소 등을 틈틈이 방문해 촛불집회, 문화행사, 노란리본 만들기 등에 참여하며 교감하며 라포(rapport)를 형성했고, 이와 병행해 정신과 전문의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를 만나 사전 정보를 수집했다. B그룹과 C그룹 인터뷰는 일대일 심층인터뷰로 2016년 4월 6일과 13일로 나누어 유가족 대기소와 광화문 광장에서 각각 진행했으며, 일부 연구참여자의 경우 연구참여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메일 인터뷰로 대체했다. A그룹 인터뷰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유가족 대기소에서 진행했다. 인터뷰에 앞서 라포 형성을 해온 유가족의 소개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분과 팀장을 만나 2016년 4월 21일 사전 인터뷰를 시행했고, 대외협력분과 팀장과 소개를 받은 연구참여자, 총 2명과 1차 인터뷰로 4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일대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그룹	사례	연령(성별)	테라피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유형	미디어 관련 활동 참여 경험 및 유형
A	1	남(47)	없음	없음
	2	여(51)	없음	없음
	3	여(44)	엄마공방 압화팀	팟캐스트 출연
	4	여(48)	엄마공방 압화팀	팟캐스트 출연

그룹	사례	연령(성별)	업무	관련 경력
B	5	남(39)	정신의학과 전문의	9년
	6	남(51)	사회복지사	18년
C	7	여(37)	자원봉사자	1년 6개월
	8	여(42)	자원봉사자	1년
	9	여(48)	자원봉사자	2년

일 심층인터뷰를 각 1시간가량 실시했다. 이어 1차 인터뷰 참여자의 소개로 눈덩이 표집방식을 적용해 2차 인터뷰를 실시했고, 5월 24일 초점집단인터뷰 방식으로 연구참여자 2명과 약 2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은 사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시하고 확약을 한 뒤, 스마트폰으로 녹취하여 문서화했다.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5월 25일 추가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4. 연구결과

1) 사회적 트라우마의 경험 사례와 집단 무의식

세월호 참사에서 직·간접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가 발생한 가장 뚜렷하고 공통적인 원인은 ‘죽음’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거의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다. 정혜신에 따르면, “트라우마는 거의 죽음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경험이기 때문에, 죽음이 생애 어느 순간보다 생생한 리얼리티로 각인”(정혜신·진은영, 2015, 64쪽)된다. 이러한 트라우마가 사회적 트라우마로 바뀐 원인에는 국가권력과 언론, 여론의 영향력이

작용한다. 왜냐하면, 세월호 침몰 과정의 생중계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접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일깨워줬고, 구조 시스템의 부재는 불안과 분노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공포감과 다른 것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 자국민이 입은 외상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트라우마 또는 원형들을 되살아나게 했다는 점이다. 고대부터 내려온 집단 무의식은 아니지만 일제 강점기를 겪지 않은 세대의 한국인에게도 반일 정서가 있듯이 근현대사의 아픔이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에도 지속되는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참사의 생존자나 유가족, 아이를 잃은 부모, 의인 등은 보호 받아야 하거나 영웅화되는 존재들이지만 현재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은 오히려 배제당하는 존재가 됐다. 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이처럼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을 ‘사방이 벽으로 막힌 공간에 갇힌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제주 4·3 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과 같이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자로서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다.

“엄마들 길거리에서 대소변 보게 하고, 우리를 인간으로 대우해주지 않잖아요. 인권이 없는 거지.” (연구참여자 A-1, 남 47세)

“내가 벌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나라에서 버려졌고, 이미 아이들과 같이 배(세월호) 안에서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됐고요.” (연구참여자 A-4, 여 48세)

이 밖에도 유가족이 웃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며 수군거리거나 ‘순수 유가족’이라는 표현으로 유가족은 항의를 하거나 화를 내서도 안 되는 존재로 규정한다. 이는 여전히 피해자를 정형화된 이미지로 틀에 가두고 대상화하는 척도에 기인하며, 여기서 벗어나려 할 경우 여론을 통해 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키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또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는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속에 남아 있는 트라우마의 원형이 되살아나 또 다른 폭력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했다. 유가족 중 일부가 정당이나 노동운동 단체 등 특정 단체에 가입했던 이력을 앞세워 이념과 색깔론 프레임에 씌운 것은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이어져 온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의 트라우마가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는 현대 한국인들에게까지 집단적으로 전승돼온 정신적 유물인 셈이다.

“우리끼리는 ‘저 사람들 색맹인가? 노란 옷 입었는데 왜 빨갱이래?’ 노란색이 많아서 위협감 느낀다고 떨어져 앉으래요. 노란색이 위협적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게 치면 우리는 ‘노랑이’들인데 왜 ‘빨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연구참여자 A-4, 여 48세)

또한, 미디어는 ‘보상금’이나 ‘특례입학’의 프레임을 강조하고 여론은 이를 상투어로 확대 재생산했다. 참사 당시 재난 보도 실패의 전형을 보여준 언론은 그 이후 과정에서도 별다른 변화 없이 일종의 ‘언론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사건 이전의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건 이후의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크리그(Krieg, 2009)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고,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C그룹은 평소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일반 국민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집단적 리비도를 좌절시키면서 사회적 트라우마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사고 초기부터 진도 팽목항 등에는 각 단체나 지역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다. 이처럼 함께 ‘살아남음’을 경험한 사회 공동체가 참사의 피해자들 옆을 지키고 손을 잡아주는 것은 직·간접 피해자 모두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사회 문제에 전혀 관심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으니 나한테 그런 사고가 생겨도 누군가 구해줄 거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세월호 통해서 ‘내 목숨, 내 아이들 목숨을 나라에서 보호해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던 거예요.” (연구참여자 C-8, 여 42세)

“(희생 학생들과) 또래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유가족들 아픔에 많이 공감했고, 어른으로서 죄책감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원봉사로) 나오게 된 거죠.” (연구참여자 C-9, 여 48세)

자원봉사자와 같은 간접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정부나 언론, 여론에 의한 사회적 트라우마 안에 집단 무의식이 드러난다. 사고 자체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건드린 것이 인류 보편의 집단 무의식에 따른 트라우마라면, 사고 이후 정부의 무능한 대처는 중요한 순간 책임을 회피하는 권력자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트라우마를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어떠한 집단에서 발생한 외상적 사건이 이후에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없

는 집단에게도 외상적 사건으로 재정의 된다는 것은 해당 사건이 도덕적 악(惡)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상징이 되며, 간접 외상을 겪은 집단이 직접적 피해자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철, 2010; Alexander, 2003/2007). 외상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들도 공포, 불안, 도덕 등 전 인류에게 존재하는 집단 무의식으로 인해 비슷한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유가족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말 걸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이 얘기를 물어보면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구나, 나와 똑같은 부모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아픔에 더 공감하게 됐어요.” (연구참여자 C-9, 여 48세)

“세월호 이후에 사람들이 옥시나 강남역 살인사건 같은 사회 문제에 더 자기 일처럼 관심을 갖는 게 보여요.” (연구참여자 A-1, 남 47세)

이와 같이 세월호 참사와 수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반인으로 대변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피해자와 같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고통에 공감하고, 트라우마를 함께 극복해나가려고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세월호 참사가 남긴 것은 개인의 고통이면서, 사회의 고통이고, 이를 치유하는 방법은 사회공동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을 때 손잡아줄 이웃이 있어야 하며, 그게 사회적 치유다”라는 <연구참여자 B-6>의 말처럼 큰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트라우마는 피해자가 비난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사회 전체가 피해자들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더 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자들은 피해자들과 사회가 어떻게 조화되고, 사회가 피해자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

2) 상징의 표현과 개성화를 통한 테라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는 투사를 방어기제의 하나로 간주하지만 융의 분석심리학에서는 자연현상이며, 보편적인 심리현상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림자’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까지도 투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강한 감정을 일으키는 콤플렉스가 의식의 표면으로 나올 때 투사가 일어나게 된다(이부영, 2014). 여러 유형의

원형이 정신 속에 존재하다가 어떠한 시점에 의식화되면서 심상으로 표출되고, 이것을 형상화한 것이 상징인 것이다(Jung, 1984b/2002). 융은 상징이 어떤 것의 의미를 정확히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 보았고, 따라서 상징은 모호하고 명확하게 설명될 수 없는 것이며 무의식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했다(Jung et al, 1964/2013).

“엄마들 중에는 자기 왼쪽 가슴 위에 아이 이름을 문신으로 새긴 사람들도 있대요. 심장에 아이를 박아놓고 항상 아이와 함께 다니고 싶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A-1, 남 47세)

“엄마 아빠들은 애들 학생증 목걸이, 이름표를 꼭 지니고 다녀요. 이렇게 품고 다니면 항상 같이 있는 것 같고, 보고 싶을 때마다 얼굴 한 번씩 볼 수도 있고...” (연구참여자 A-2, 여 51세)

문신과 학생증 목걸이, 이름표는 상실된 대상, 즉 희생된 아이에 대한 시각적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다. 융 등(Jung et al, 1964/2009)은 이 같은 상징을 ‘자연적 상징’과 구분되는 ‘문화적 상징’이라고 설명한다. 무의식적 내용물에서 파생되어 고대 기원을 추정할 수 있는 자연적 상징과 달리 문화적 상징은 많은 변용 과정과 의식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고 문명사회에 수용되면서 집단적 이미지가 된다.

애도뿐만 아니라 기억을 위한 상징도 나타난다. 참사 발생일을 뜻하는 숫자 416과 희생자 숫자인 304 등을 자신의 공예 작품에 넣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자원봉사자인 C그룹의 경우 유가족과 유사하면서도 개인적인 기억보다는 세월호 참사 자체가 사회 전체의 기억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로 상징이 드러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자는 의미의 노란 리본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징은 같은 것을 두고도 집단과 입장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거나 트라우마를 전후로 개개인이 상징화하는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연구참여자 A-4>의 답변에서는 시위 진압 경찰에 대한 상징의 의미가 자녀의 원형에서 악의 원형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은 2주기가 가까워서 다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좀 늘었는데 한동안 리본이 잘 안 보일 때는 ‘별써 잊혔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가끔 길에서 리본 단 사람을 보면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잊지 않았구나’ 하고 반가워요.” (연구참여자 C-9, 여 48세)

“앞쪽에 서있는 어린 (경찰)애들 보면 안타까운데 상황이 격해지면 그 얼굴이 아이들로 안 보여요. 우리랑 대치하고 있는 존재니까 그 애들이 ‘아들’에서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A-4, 여 48세)

이처럼 상징은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심리적 상황을 요약해준다. 또한 의미가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드러나는 대신 개별적인 용어로 표현되고, 보편적인 심상을 공유한다 (Samuels, Shorter, & Plaut, 1986/2000). 상징의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상징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를 잃게 하는 것이며(Jung et al, 1964/2013), 사회적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상징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개성화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기관은 다양하지만 피해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형성된 엄마공방이다. 엄마공방은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 유가족 대기소 한 편에 자리하고 있으며, 단원고 피해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모여 수예, 매듭, 압화, 한지 공예 등을 배우고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곳이다. 엄마공방에서 압화팀에 속해 있는 <연구참여자 A-3>의 답변은 뚜렷한 개성화 과정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이들 일로 노숙 농성에, 집회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전국을 다니니까 내 생활이 없어지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장기간 해야 할 일이라 도중에 지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의 여유를 조금 가지고 나 자신을 충전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잡은 게 압화였어요.” (연구참여자 A-3, 여 44세)

<연구참여자 A-3> 과 <연구참여자 A-4> 의 경우 자신들의 실력 안에서 압화와 매듭 공예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며 각자 나름대로의 치유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가족들은 굳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만드는 공예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며 각자가 생각하는 상징들로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애도의 감정을 표현해내고 있다. 이들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지만 표현하는 상징이 서로 다르고, 같은 상징에도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개성화 과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집단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Jung, 1945/2004).

“같은 걸 만들어도 엄마들마다 의미하는 건 다를 거예요. 매듭도 배워서 부엉이를 만들고

있는데, 부영이가 복(福), 행운을 상징한대요. 우리 아이들 일이 잘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연구참여자 A-3, 여 44세)

“수예로 주로 표현하는 건 벚꽃이에요. 아이가 벚꽃 피는 4월에 태어나고, 4월에 갔으니까요. 그리고 압화 실력을 더 길러서 언젠가는 꽃으로 우리 아들 얼굴을 꼭 만들 거예요.” (연구참여자 A-4, 여 48세)

공예와 같은 아트 테라피 외에 뉴미디어를 활용한 방식도 가능하다. 416기억저장소에서 제작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 <416의 목소리>는 매회 유가족이나 사고 당시 참여했던 잠수부 등이 출연해 자신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전달한다. <416의 목소리>에서는 매 방송 서두에서 ‘이력서’라는 이름으로 그날 출연한 인물이 태어나서 현재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개인사를 설명한다. 이는 직접적 피해자들이 간접적 피해자들인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됐다.

“듣는 분들이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라는 존재부터 얘기해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무안하긴 했는데 내레이션으로 들으니 제 얘기지만 슬프더라고요. 내 마음을 어쩔 이렇게 잘 알았는지...” (연구참여자 A-4, 여 48세)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분명하게 개성화 과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외상으로 인한 질환인 PTSD의 치유에는 무엇보다 문제를 야기한 외부적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정혜신·진은영, 2015). 따라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투사’로 돌아가게 하고,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은 개성화 과정을 거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미디어를 활용한 트라우마 테라피

현재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안산온마음센터와 그 외 민간단체를 찾거나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원고 학생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이러한 과정을 거부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A그룹과의 인터뷰 결과, 정부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신과 진상 규명이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심리상담이나 테라피 과정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이 밖에,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의 심리 치유 센터 운영과 상담 시스템 전반

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고, 시간이 여의치 않거나 ‘마음이나 몸이 편해지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거나 신체적으로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는다고 답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머리로는 트라우마 센터에 가서 상담 받아야 하는 거 아는데 그것도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거니까 괜히 치유해준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만 잊고 살게 하려는 것 같아서 싫어요. 거기 간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도 없고.” (연구참여자 A-1, 남 47세)

“처음에는 ‘해야 하는 건가’ 고민하다가도 결국 ‘우리가 실험대상이야?’ 하면서 뼈뜰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치유를 해야 한다면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항상 곁에 있으면서 지켜봐줘야 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A-3, 여 44세)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세월호와 관련한 상담 및 테라피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요가나 마사지, 뜨개질 등 주로 몸을 이용하는 방법이다(안산온마음센터, 2016). 전문의와의 개인 상담을 비롯해서 글쓰기나 사진전과 같은 미디어를 활용한 감정의 표출도 있지만 전체 피해자 수에 비해 실제 참여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진상 규명이 명확히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공예 등의 예술치료 외에 사진이나 영화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테라피 방식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A그룹은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였고, 디지털 미디어를 자기표현을 위해서가 아닌 기록용이나 증거 수집용으로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리상담 전문가인 B그룹은 이러한 작업이 시기상조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원래는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목적 자체가 예전처럼 예쁜 풍경을 담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려는 거예요. 취미가 아니라 증거, 채증인 거죠.” (연구참여자 A-3, 여 44세)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 보면 더 답답해요. 영화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만 하죠.” (연구참여자 A-2, 여 51세)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 생각들과 싸우거나 무기력해지지

않으려면 반복적인 단순작업을 손에 쥐고 있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뜨개질이나 공예에 빠져 있죠. 아직은 무리가 있지만 나중에는 다양한 문화작업들이 만 들어지면 좋을 거예요.” (연구참여자 B-5, 남 39세)

이처럼 사고가 발생한지 몇 해 지나지 않았고, 사회적 트라우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경우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특정한 장소에 방문해 참여해야 하는 테라피 프로그램을 통한 치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경우 단원고 피해 학생들의 친구와 형제, 자매들이 참여한 사진 치유 프로그램 ‘무사들’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발생한지 30년이 넘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광주트라우마센터의 경우 몇 해 전부터 예술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진 치유를 진행하고 있고, 5.18 당시를 그린 영화를 통한 치유 방식도 시도 중이다(배상현, 2016, 4, 28). 디지털 미디어는 현재 필수품으로 여겨질 만큼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따라서 테라피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일상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치유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용이 치유자와 환자의 치료관계에서 공명을 찾아내고자 하면서 제시한 ‘상처 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라는 개념을 끌어올 수 있다(Jung, 1945/2004; Samuels, Shorter, & Plaut, 1986/2000). 이는 치유자는 건강한 사람, 환자는 아픈 사람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으며, 치유자가 자신이 상처 받았던 경험을 환자에게 투사하면서 감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나 사고로 피해를 겪은 트라우마 피해자도 누군가에게는 치유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A그룹의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마음,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끼리 얘기해야 가장 잘 통하죠. 지금 압화를 계속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또 저희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면 제가 가서 도와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연구참여자 A-4, 여 48세)

“자원봉사자들끼리 요일이 달라 서로 마주칠 일이 많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으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서로 친해지고, 정보도 나누고, 화날 땐 같이 욱도 하니깐 좋아요. 주변에서 가끔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하면 우울해지는데 이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이 풀리거든요.” (연구참여자 C-7, 여 37세)

그런 의미에서 단원고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서로 자녀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사진들을 복원하여 공유하는 일도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혜신은 이를 “상실한 아이와의 관계에서 완료되지 않은 것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고, 더 얘기를 하고, 더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치유의 핵심(정혜신·진은영, 2014, 161쪽)”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미디어는 특별한 테라피 프로그램 없이도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 안에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은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은 공동체 안에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혜신·진은영, 2014; 최태용, 2016, 4, 16). 그리고 간접적으로 사회적 트라우마를 함께 겪은 모든 이가 참사의 직접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자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스스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도 있다.

현재 엄마공방에서 만들어진 공예품들은 세월호 유가족이 주도하여 개최하는 ‘엄마랑 함께하장’을 통해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은 지역 아동센터 등 인근 지역 단체에 기부되고 있다. 이는 테라피 프로그램을 통한 결과물이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술치료는 이제 국내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테라피는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에서 진행 중인 크로스미디어영화제 ‘안산준인’²⁾은 이러한 점에서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안산준인’은 안산시 주민과 안산시의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노인 등이 단편 영화를 함께 제작하는 크로스 미디어 활동으로 이를 통해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서로 소통할 일이 없었던 집단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는 치유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들을 토대로 향후에는 미디어를 치유에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용의 분석심리학과 집단 무의식, 상징과 개성화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에게서 어떠한 무의식이 표출되며, 미디어 테라피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과 치유, 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론적 논의들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참사의 직접 피해자인 유가족 그룹은 참사 이

2)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공식 네이버 블로그 URL: <http://blog.naver.com/dadada2661>

후부터 나타난 국가 폭력, 사실 왜곡,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이 이들에게 고립감을 안겨주는 등 이차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 간접 피해자인 자원봉사자 그룹의 경우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 부재, 언론의 오보와 왜곡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트라우마를 경험하였다. 이처럼 직·간접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사회적 트라우마에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이 그간 역사적·사회적으로 겪어온 정치권력의 무능, 리더십 부재, 국가 폭력 등에 대한 콤플렉스와 트라우마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사회 구조적인 조건들로 인해 억압된 집단 리비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간접 피해자들이 사회 공동체로서 트라우마를 함께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집단의 인터뷰 결과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가족 그룹은 문신, 학생증, 이름표, 416이나 304와 같은 숫자 등을 상징물로 하여 ‘그리움과 애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자원봉사자 그룹도 노란 리본을 만들고 소지품에 부착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것을 기원하고 연대를 확인한다. 테라피 활동을 하는 유가족 그룹은 개개인의 심리적 상황을 담은 이러한 상징들을 공예 작품 활동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외 활동에서 쓰는 페르소나를 잠시 벗어두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유가족 그룹은 진상 규명 없이는 완전한 치유도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트라우마의 외부적 요인을 없애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끝으로 현재 미디어 테라피 활동의 한계는 유가족 그룹의 연구참여자들이 여러 이유로 미디어 테라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공예 활동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진이나 영상 같은 디지털 미디어는 테라피 도구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만 세월호 참사 자체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사회적 트라우마는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프로그램화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미디어 테라피가 트라우마 치유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의 활용도는 트라우마의 치유가 반드시 정해진 장소와 프로그램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질 때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트라우마의 경우 참사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의 마음에 남은 상처다. 따라서 사회적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미디어가 어떠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두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현재 세월호 참사는 진상 규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회적 트라우마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몸의 피로도를 낮추는 치유의

첫 단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마음을 보살피는 단계인 연구참여자들의 미디어 테라피에 대한 경험을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때문에 테라피를 통한 개성화를 더 구체적으로 살피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운 점이다. 또, 연구참여자 선정의 어려움도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는 생존자, 단원고 학생 유가족, 일반인 유가족, 자원봉사 잠수부, 피해 학생의 친구 등 다양하지만 현재로서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피해자는 대외 활동이 많은 유가족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이뤄질 후속 연구에서 더욱 심층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참여관찰을 통한 장기간의 연구로 연구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관찰하고, 라포를 더 깊이 있게 형성해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들의 부주의함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목격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테라피 방식이나 이에 대한 연구의 측면에서 유가족이나 생존자 등 직접적인 피해자들을 대상화하고 지역 사회에서 이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닌 세월호 참사로 인해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겪은 누구라도, 치유의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진숙 (2016).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교육 연구의 주사위: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지금.
- 김동춘·김명화·강은숙·최현정·이재승 (2014).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한국전쟁에서 쌍용차까지>. 서울: 역사비평사.
- 김명희 (2015). 세월호 이후의 치유: 제프리 알렉산더의 '외상 과정'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19권, 11-53.
- 김서영 (2007). 정신분석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일고찰.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9권 1호, 265-285.
- 김성민 (2012). 콤플렉스와 정신병리: C.G. 융의 이론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32호, 429-455.
- 김정현 (2008). 무의식과 꿈의 문제: 니체와 프로이트, 융의 해석을 중심으로. <니체연구>, 13집, 35-67.
- 김종곤 (2013). '역사적 트라우마' 개념의 재구성. <시대와 철학>, 24권 4호, 37-64.
- 김지훈 (2015). 개성화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시의 그림자 형상화 문제: 백이무의 시를 중심으로.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4권 3호, 5-27.
- 박성일 (1996). 시각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원형적 심상에 관한 연구: C.G. 융의 집단무의식 이론을 중심으로. <혜전전문대학논문집>, 14권, 125-156.
- 박정아 (2015).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트라우마와 치료적 신화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연세상담코칭연구>, 3권, 61-85.
- 박찬부 (2010). 트라우마와 정신분석. <비평과 이론>, 15권 1호, 31-58.
- 배상현 (2016, 4, 28). 광주트라우마센터, 5·18 영화 통한 '치유 시네마 토크'. <뉴시스>. URL: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28_0014052687&cID=10809&pID=10800
- 배우순 (2008). S. 프로이트의 심층 심리적 무의식에 대해서: E. 후설의 '현상학적 무의식'에 연관해서. <철학논총>, 54집 4권, 309-334.
- 송낙원 (2013). 영화치료의 기초 이론 연구. <영화연구>, 57호, 169-201.
- 안산온마음센터 (2016). <마음으로 함께한 우리의 이야기: 안산온마음센터 백서 2014-2015>. 경기: 안산온마음센터.
- 오승진 (2015). 조선백자의 흰색을 통해 본 한국인의 원형적 심상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1권 3호, 223-244.
- 이강화 (2007). 정신치료의 시네마테라피적 접근: 담론 분석을 통한 영화치료의 가능성. <철학논총>, 49집, 235-253.
- 이부영 (1998). <분석심리학: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제3판). 서울: 일조각.
- 이부영 (2014). <분석심리학 이야기>. 서울: 집문당.

- 이정애 (2015, 1, 1). 광복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2040 “세월호” 5060 “한국전쟁”. <한겨레>. UR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1733.html
- 이지양 (2013). 자아 커뮤니케이션과 사진치료기법에 관한 고찰: 사진치료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16권 4호, 195-204.
- 이철 (2010). 사회적 외상(Social Trauma)의 문화적 차원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연구: ‘용산 참사’ 사건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49권, 127-161.
- 정덕자 (2013). 시네마테라피. <상담과 지도>, 통권 48호, 15-37.
- 정인석 (2008). <의식과 무의식의 대화: 융의 분석심리학을 중심으로>. 서울: 대왕사.
- 정혜산·진은영 (2014). 이웃집 천사를 찾아서: 세월호 트라우마, 어떻게 극복할까. <창작과 비평>, 통권 166호, 150-179.
- 정혜산·진은영 (2015). <천사들은 우리 옆집에 산다>. 경기: 창작과 비평
- 최윤경 (2014, 6월). <집단 트라우마와 마음의 치유>. 한국사회학회 2014년 사회학대회. 대전: KAIST.
- 최태용 (2016, 4, 16). [세월호, 망각과 치유]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삶, 공동체에서 치유 받아야”. <포커스뉴스>. URL: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1600085726034>
- 한주연 (2015). 예술의 유희적 특성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의 예술치료 활용의 가능성. <한국영상학회>, 13권 3호, 145-160.
- Alexander, J. C. (2003). *The meanings of social life: A cultural sociology*. 박선용 (역) (2007). <사회적 삶의 의미: 문화사회학>. 경기: 한울.
- Allen, J. G.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권정혜·김정범·조용래·최혜경·최윤경·권호인 (역) (2010). <트라우마의 치유>. 서울: 학지사.
- Freud, S. (1915). *Das unbewusste*. 윤희기·박찬부 (역) (2003). <무의식에 관하여: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경기: 열린책들.
- Hall, C. S., & Nordby, V. J. (1973). *A primer of Jungian psychology*. 김형섭 (역) (2009). <융 심리학 입문>. 서울: 문예출판사.
- Jung, C. G. (1934). *Allgemeines zur komplextheorie*. Aarau: Sauerländer
- Jung, C. G. (1945). *Personlichkeit und ubertragung*.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2004). <인격과 전이. 융 기본 저작집 3>. 서울: 솔 출판사.
- Jung, C. G. (1962). *Erinnerungen traume gedanken*. 조성기 (역) (2007). <카를 융: 기억, 꿈, 사상>. 경기: 김영사.
- Jung, C. G. (1984a). *Archetyp und unbewusstes*.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2002). <원형과 무의식. 융 기본 저작집 2>. 서울: 솔 출판사.
- Jung, C. G. (1984b). *Traumsymbole des individuationsprozesses*.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2002).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융 기본 저작집 5>. 서울: 솔 출판사.
- Jung, C. G. (1985). *Symbol and libido*.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2005). <상징과 리비도. 융 기본 저작집 7>. 서울: 솔 출판사.
- Jung, C. G. (2001). *Traum und traumdeutung*. Munchen: DTV Deutscher Taschenbuch.

- Jung, C. G., von Franz, M. I., Henderson, J. L., Jacobi, J., & Jaffe, A. (1964). *Man and his symbols*.
이부영 외 (역) (2013). <인간과 상징>. 서울: 집문당.
- Krieg, A. (2009). The experience of collective trauma in Australian indigenous communities.
Australian Psychiatry, 17, 28-32.
- Samuels, A., Shorter, B., & Plaut, F. (1986). *A critical dictionary of Jungian analysis*. 민혜숙 (역)
(2000). <융분석비평사전>. 서울: 동문선.

투고일자: 2016. 7. 31. 게재확정일자: 2016. 11. 23. 최종수정일자: 2016. 11. 28.

A Study on Media Therapy Experience for Individuation and Treatment of Social Trauma

Focusing on Jung's Collective Unconsciousness and Individuation

Sook Yoo

Master student, School of Media &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Jin Suk Kang

Professor, School of Media &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social trauma experienced by direct victims of accidents and each member of the society affected by grand-scale disasters based on the concepts of collective unconsciousness, archetype, and individuation from Jung's analytical psychology, and their experience of therapy through media. For this purpose, the survivors of the disaster of Sewol that occurred on April 16, 2014, family of the deceased, psychological professionals, and general volunteers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for one-on-one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ubjects are suffering from different forms of social trauma such as seclusion and anxiety due to primary/secondary incidents, but there is possibility for them to overcome the social trauma as a social community. Second, the archetypes of life and death, mourning and remembrance are showing in the subjects' everyday live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various archetypes are appearing symbolically through the craft activities in which the survivors are participating most actively. Third, the media therapy program for the victims of the Sewol has limitations in various aspects. However, the fact that the craft activities that are not bound by time and space are highly effective manifests that anyone can take advantage of trauma therapy through digital media that are easily found around them. Finally,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verified the possible individuation of social trauma and identified the limitations of media therapy to suggest its development directions.

KEYWORDS Social Trauma, Media Therapy, Individuation, Collective Unconsciousness, Carl Jung